

2020학년도 제 4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0년 4월 14일(화) 11:00~13:00
- 회의장소 : 경제관 815호 회의실
- 참석위원 : 이종진 (위원장)
전종호 (학생문화처장)
김일 (기획예산팀장)
전가은 (학부 추천위원)
장두용 (대학원 총학생회장)
송방호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 불참위원 :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김한솔 (학교법인 회계사)
- 배 석 :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안미경 (재무팀 과장)
이근화 (간사 / 기획예산팀 직원)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확인 및 심의 보고자료 내용 해설

- 2019학년도 회계결산보고 및 2019학년도 적립금 현황 보고 자료를 설명함

① 재무팀(안미경 과장 배석)에서 아래와 같이 2019학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함.

- 아 래 -

(단위 : 억 원)

구분	등록금	비등록금	계
세입	1006.4	595.7	1602.1
세출	999.0	603.1	1602.1

* 세입 : 등록금, 전입 및 기부 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본부채수입, 전기이월자금

* 세출 :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외비용, 자본부채지출, 차기이월자금

② 기획예산팀(김장훈 과장 배석)에서 적립금 현황 및 목적 변경 내역 등에 대해 설명함.

2. 위원 발언 및 질의응답

송방호(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현재 우리 대학이 적립금은 감소하고 있고, 등록금 비중이 높고 있음. 올해에는 유학생 유치 상황도 어려워 보이는 등 학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짐. 이를 타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봄. 특히 올해에는 많게는 30%까지 등록금 환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획처가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이종진(위원장)

현 집행부가 2016년에 적립금 -148억 문제를 안고 시작했고 시작했으나, 여러 기금을 동원하고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 상환하였음. 이 점에서 적립금은 타 대학에 비해 적으나 그만큼 빛도 없는 상황임.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이월된 트랙기금을 회수해 오는 등 기획처가 노력을 기울였고 학교 재정을 잘 유지해 왔지만, 외부 여건상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음.

학교 재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국제문화교육원 적립금 등 일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일부 사용하여 적자가 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는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부금 모금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적립금도 계속 모으기만 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립금 사용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재정적 순환을 통해 동문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적립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학교를 발전시켰으므로 기부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임. 학교 재정에 투자하지 않고 계속 적립금을 쌓는 것보다는 학교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방법임.

결론적으로 학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모금 활동에 사활을 걸고 집중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법인전입금임. 현재에도 법인의 수익규모가 적고, 이에 따라 법인 전입금 규모도 적은 수준임. 특히 법인책무성에 관한 부분은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도 이미 보고된 부분임. 거기서 법인은 매년 18억 상당의 전입금(법정부담금과 경상비 전입금을 합한 금액)을 2020년까지 내려보내겠다고 약속했고(4년간 총 72억 정도), 기획처장으로서 2018년도에 있었던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위한 대면평가에서 당시 평가위원이 향후 5년간 8억씩의 예수회 기부금을 보장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음. 하지만 예수회와 법인의 약속 모두가 지켜지고 있지 않음. 이는 3주기 구조개혁평가 시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래서 내년도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위해서도 법인이 책무성을 다하여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림.

이종진(위원장)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전에 남양주캠퍼스 관련 문제로 동문회와 집행부 사이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동문회와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기부금 모금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생각됨. 2학기 때 60주년 기념행사를 간소하게 하더라도 모금 활동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음.

전가은(학부 추천위원)

학생들 사이에 등록금 환불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개강 후 시설 이용도 어렵고 수업의 질도 문제가 되어 이러한 논의가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수지 등을 볼 때 현실적으로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임. 그러나 학생들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수입지출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종진(위원장)

현재 실질적인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은 기획처에서 준비중에 있음.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출도 상당한 수준이며, 그 밖에 유학생 등록금 등 수입의 손실 부분, 추가 지출 부분 등을 고려해야 함. 입학금의 경우에도 9월 이후 학교가 정상화될 경우 신입생 관련 업무에 입학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학생들이 받는 피해도 있지만 학교가 받고 있는 재정적 타격도 큰 만큼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학생 측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전가은(학부 추천위원)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건물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의 질 문제도 있음. 예를 들어 경제학부의 경우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 인원은 많지만 전임교원 수는 매우 부족한 수준임. 예산 상으로 전임교원 총원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문의드림.

이종진(위원장)

현재 경영, 경제학부의 경우 인원 수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전임교원 수는 부족함. 지난 3~4년간 학교의 재정을 유지하는데 집중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전임교원 총원과 교육의 질 확보에 힘써야 함. 적절한 투자 없이는 학교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올해에는 학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신입교원을 많이 총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해당 문제는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송방호(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장)

대학원 총원 문제로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한편 대학원 등록금은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봄. 계속 동결 기조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원 등록금이 인하되어야 하지 않는지.

이종진(위원장)

등록금 인하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원 총원율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 이 점은 예산 편성 시 기획처에서 검토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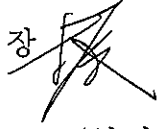
3. 결정사항

- 2019학년도 결산 확정 및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

2019. 4. 17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이종진 기획처장



(교직원 위원)

(학생위원)

(외부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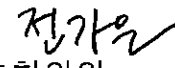
전종호

학생문화처장



전가은

학부 추천위원



김일

기획예산팀장



장두용

대학원 총학생회장



송방호

MBA 원우회장

